



## Alltech 제21회 아시아-태평양 순회강연

### “소비자는 항생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안전성이 곧 브랜드” 올텍 CEO 피어스 라이언스, 제21회 아시아-태평양 순회강연에서 언급

올텍의 제21회 아시아-태평양 순회강연이 지난 11월 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에너지 위기시대에 에너지 산업과 사료산업의 공존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가축의 사육성적 및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과학적 사료 급여 프로그램과 사료용 원료 가격이 치솟는 현재에 DDGS 및 섬유소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료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 올텍의 기술이 어떻게 축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해외 연사들의 발표를 통해서 사료업계 관계자들과 다른 여러 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올텍의 CEO인 피어스 라이언스 박사는 앞으로 옥수수 가격은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서두로 에탄올의 생산으로 섬유소가 덩달아 생산될 것이며, 이것을 대체원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이 항생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료업계 관계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안전성이라고 전하며 이것이 곧 브랜드가 됨을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선의 정보로 무장하고 또한 최첨단 기술을 응용해서 보다 큰 성적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주장하며 올텍이 끊임 없는 투자와 연구를 통해 앞으로 축산업계를 선도하여 농민과 사료회사들에 큰 힘이 될 것을 약속했다.

▶ 다음은 강연회에서 연사들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제1주제 : 유기태 셀레늄, 셀플렉스와 면역기능

발표 : Dr. Kate Jacques - Alltech Inc., USA

동물의 질병은 인간의 공중보건과 식품안전성에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인간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인류는 질병을 제거하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증가시켜 자체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셀레늄이 결핍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유기태 셀레늄은 선천성 면역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유방염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갑각류의 선천성 면역력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이유 전 폐사율을 낮출 수 있다. 결국 인간이 셀레늄을 축적하려면 동물도 마찬가지로 몸에 저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기태 셀레늄인 셀플렉스의 이용을 통해 바이러스성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더불어 가축의 건강상태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제2주제 : 임신-도태까지 최적영양;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양소의 최적화**

**발표 : Paul Groenewegen - Alltech Canada**

경제적으로 최대의 성적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모체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 어린동물의 영양 및 면역력 향상에 힘쓰는 것이다. 가축의 잠재적 성장능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돈유에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료에는 이것이 부족하고, 급격한 성장과 장용모의 발달에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꼭 필요하다. 유기태광물질과 뉴클레오타이드가 풍부한 기능성 원료인 뉴프로를 모체와 그 자손에게 급여함으로써 가축이 가진 유전력에 근사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 논문 등을 통해 입증되었다. 농장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은 가축의 초기성장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뉴프로는 가축들이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3주제 : 에탄올의 현재와 미래; 축산업의 미래와 관련하여**

**발표 : Duane Kristensen - Chief Ethanol Fuels Inc., USA**

미국에서는 현재 에탄올 붐이 일어나고 있다. 농민조합이 에탄올 공장을 건설해서 옥수수를 에탄올로 바꾸고 더 많은 수익을 얻고 또 더 많은 농민들이 에탄올 생산에 동참하고 싶어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45개 공장의 추가 건설을 논의 중이다.

DDGS는 변이가 심한 원료로 알려져 있지만 에너지 가치가 높은 원료로서 가축산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DDGS 사용에 가장 큰 문제점은 옥수수에 비해 최소 3배 이상의 마이코톡신이 농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DDGS의 생산량은 점점 더 늘게 될 것이며, 현재 사용 중인 옥수수와 대두박은 훨씬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DDGS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



**제4주제 : 섬유소 이용성의 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

**발표 : Dr. Fernando Rutz - Pelotas Federal University, Brazil**

전 세계는 지금 사료용으로 쓰이는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의 심각한 가격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몇 년 이내에 동물 사료로 쓰이던 옥수수와 대두박의 고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축산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떨어지는 이용성 및 마이코톡신 문제 등으로 잘 사용해 오지 않았던 섬유소 및 부산물 등을 잘 이용해야 한다. 이에 최신의 고상 발효기술을 통해 생산된 효소(올자임 SSF)와 광범위 곰팡이 독소흡착제(마이코솔브)는 이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마이코톡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㉟